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6월 17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행19장 21-22절

설교제목 :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본문 21절을 봅시다. 21절 “이 일이 있는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에베소 사역이 마무리 하고나서, 발칸반도의 북부와 남부지역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두루 방문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이러한 비전을 선포한 해가 대략 주후 54년 혹은 55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는 50대 직전이나 50대에 진입한 나이였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대략 50세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선포할 나이가 아니라, 하던 사역마저도 정리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미 바울은 이미 15년 가까이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의 전도여행을 잘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안주한다고 해서 결코 바울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로마 선교를 향한 강력한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리석은 일은 현실에 안주하고 사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미완성 사이에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의 공통된 사명이자 비전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사명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 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사명을 포기한채 자기 임의대로 현실에 안주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눅 12:47-48) 현실에 안주하는 삶은 우리에게 육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꿈과 사명을 앗아갑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삶은 그저 생존하고, 호흡하는 시간을 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수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삶은 살아있더라도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2014년 10월 향년 103세의 일기로 소천하신 방지일 목사님께서도 죽음의 순간까지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달아서 죽을지언정 녹이 나서 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시도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이 만들어낸 자기 변명과 이유를 가지고, 도전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했다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적당히 꾸물거리면 안주하며 살다가 보면 후회스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해서 더 이상 도전하지도 노력하지도 않는다면 그 때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는 표현에는 반드시 로마를 방문하고 말겠다는 바울의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는 바램입니다. 그저 그랬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바램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으므로 유럽 전도의 전진기지로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를 복음화 시킨 것처럼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을 복음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로마 선교에 대한 확고한 목표가 그로 하여금 안주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목표를 잊으면, 대충대충 삽니다. 그런데 목표가 분명하면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는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작정하여’라고만 번역되어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엔 코 프뉴마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성령으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로마 선교계획을 세울 때에, 자기주관대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바를 따라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는 삶을 사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책임 있는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않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한 답을 줍니다. **엡5:16-17**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않는 분명한 지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술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술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방탕(아소티아)**”은 ‘낭비’, ‘부도덕한 행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술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술을 먹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서, 낭비하는 삶, 부도덕한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술취하지 말라는 것은 낭비하는 삶, 부도덕한 삶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매일 동행함으로 성령충만을 유지할 때에, 인생을 헛된 욕망에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늘 성령과 매일 동행하였기에, 자기주관이 아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로마 선교를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충만할 때, 우물쭈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일 성령충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바울이 로마 선교의 비전을 선언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 2) 바울의 로마 선교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로마 선교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가 종사오니 하는 식으로 안주하는 삶을 살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닭도록 쓰임받다가 죽을 지언정, 녹슬어 죽지 않겠다**’는 방지일 목사님의 좌우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